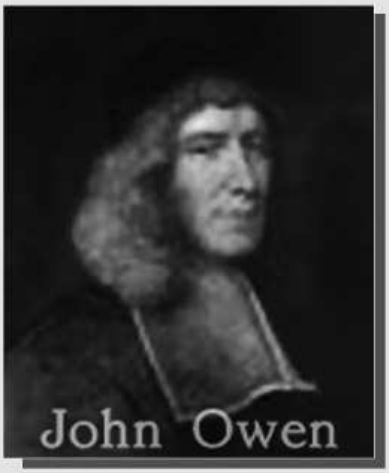
이 성 호 | 합동신학대학원 교수

존 오웬(John Owen)과 부흥

부흥과 관련하여 존 오웬(1616-1683)을 말하기는 쉽지 않다. 무엇보다 부흥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달라지는데, 부흥이 영국에서 발생하였던 웨슬리의 부흥운동이나 미국에서 일어났던 대각성 운동(the Great Awakening)을 의미한다면, 우리는 오웬을 언급하면서 부흥을 같이 이야기할 수 없을 것이다. 오웬은 그런 운동이 발생하였던 시기보다 한 세기 이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부흥운동을 보거나 경험하지 못하였다. 또한 그가 살았던 시대적 상황은 그야말로 영국 역사에 있어서 가장 격변의 시기였고, 그 속에서 18세기, 19세기식의 부흥운동은 그다지 의미가 없는 운동이었다. 그가 살았던 시기가 '부흥' 혹은 '부흥운동'을 필요로 하는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이해하는 부흥운동의 관점에서 오웬을 바라보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다른 모든 이들과 마찬가지로 오웬 역시 시대의 아들이었고, 따라서 그 시대의 맥락에서 오웬을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부흥을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라는 하박국 3:2에서 말하는 부흥으로 생각한다면 (이 구절은 한국교회에서 너무나 알려진

이 성 호 | 합동신학대학원 교수

존 오웬(John Owen)과 부흥

부흥과 관련하여 존 오웬(1616-1683)을 말하기는 쉽지 않다. 무엇보다 부흥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달라지는데, 부흥이 영국에서 발생하였던 웨슬리의 부흥운동이나 미국에서 일어났던 대각성 운동(the Great Awakening)을 의미한다면, 우리는 오웬을 언급하면서 부흥을 같이 이야기할 수 없을 것이다. 오웬은 그런 운동이 발생하였던 시기보다 한 세기 이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부흥운동을 보거나 경험하지 못하였다. 또한 그가 살았던 시대적 상황은 그야말로 영국 역사에 있어서 가장 격변의 시기였고, 그 속에서 18세기, 19세기식의 부흥운동은 그다지 의미가 없는 운동이었다. 그가 살았던 시기가 '부흥' 혹은 '부흥운동'을 필요로 하는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이해하는 부흥운동의 관점에서 오웬을 바라보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다른 모든 이들과 마찬가지로 오웬 역시 시대의 아들이었고, 따라서 그 시대의 맥락에서 오웬을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부흥을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라는 하박국 3:2에서 말하는 부흥으로 생각한다면 (이 구절은 한국교회에서 너무나 알려진

초대교회는 회원을 말아들이는데 있어서 철저한 교육을 시켰고, 이미 말아들인 회원에 대해서도 엄격한 권징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오히려 폭발적으로 생장하였는 점을 지적하였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숫자가 모이는가가 아니라 어떤 종류의 신자들이 모이는가이다. 교회에 필요한 것은 산 돌(벧전 2 장) 이며, 이상돌 은 중생한 신자들이다. 이러한 재료로 구성될 때, 교회는 올바르게, 그리고 굳게 설수있다는 것이 오웬의 강한 확신이었다.

문구임에도 불구하고 이 구절에 대한 이해는 너무 피상적이다. 이 구절만 보더라도, 부흥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흥회식의 부흥이 아니라 "주의 일"의 부흥이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흥을 간구하기 전에 주의 일,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주께서 앞으로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잘 알아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회에서 이 구절을 구호로 내 세울 때는 "주의 일"이라는 핵심적인 단어를 빼어 버린다. 한국교회는 부흥만 있지, 부흥의 내용은 없거나 자신들이 만들어낸 부흥만이 존재하는 것 같다.) 이야기는 달라진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에서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앞 뒤 문맥을 잘 살펴보면, 여기서 말하는 부흥은 하나님께서 옛적에 하셨던 일, 즉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구원 역사를 한 번 더 일으키시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무지와 죄로 인해 거대한 이방 제국에 의해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되는 것이 부흥이다. 만약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부흥을 이야기한다면, 존 오웬이야말로 참다운 부흥 운동가였다고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고통당하는 참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국가라는 거대한 권세에서 해방되어 참된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기를 누구보다도 갈망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국가교회(National church)의 역사적 배경

부흥에 대한 존 오웬의 견해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속해 있던 영국 교회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존 오웬은 영국에서 태어난 영국 사람이었고 영국교회(Church of England)의 회원이었다. 이것이 뭐가

문제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으나, 이런 관습적 전통이 거룩한 교회를 타락시키는 주원인이라고 생각하는 무리들이 점차적으로 생겨났다. 한 세기 전 16세기에 일어났던 종교개혁으로 인해 일부 국가들의 경우 교회가 많은 점에서 새롭게 되었지만 국가교회(national church)라는 개념은 근본적으로 도전 받지 않았다. 즉, 교회와 국가는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교회의 회원과 국가의 회원은 거의 동일하였다. 단적인 예를 들면, 어떤 국가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는 교회에서 유아세례를 받고 교회의 회원이 되었다. 그 결과 그 아이는 출생과 동시에 국가의 시민이기도 하면서 교회의 회원이기도 하였다.

이런 상황 속에서는 자연히 교회 안에 신자와 불신자가 뒤섞여 있을 수밖에 없었고 교회는 신자들의 거룩한 공동체가 아니라 죄인들이 뻔뻔스럽게 활보하는 인간들의 사교단체가 되어버렸다. 종교개혁 당시 재세례파는 이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국가와 교회를 철저하게 분리시키는 것뿐이었다고 믿었다. 그러기 위한 실제적인 유일한 방법은 유아세례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었다. 교회의 회원과 국가의 회원이 일치하는 한, 교회에 대한 세속의 물결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물론, 신학자들이 이론적으로는 국가와 교회가 구분시켰지만, 그 회원들이 구분되지 않는 한 그와 같은 사변적 구분은 교회에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그들은 생각하였다. 그 결과 재세례파들은 교회의 회원을 오직 자신의 신앙을 스스로 고백하는 사람들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스스로의 고백으로 교회의 회원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회원을 계속 거룩하게 유지하는 것에 많은 힘을 쏟았다. 당연히 말씀의 선포나 성례보다는 권징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표지로 간주되기도 하였다.

재세례파를 제외한 종교개혁가들도 교회가 개혁되기를 원하였지만, 그들의 주된 관심은 교회의 구성원이 도덕적으로 개혁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교리가 개혁되는 것이었다. 교회가 당면한 급선무는 타락한 로마교회의 거짓 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순수한 복음을 선포하고 그 복음에 따라 올바른 성례를 집행하는 것이었다. 만약 교회에서 주의 말씀을 꾸준히, 올바르게 그리고 신선하게 선포한다면, 비록 교회 안에 죄인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교회의 거룩성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교회의 거룩성이 교회의 회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선포하는 말씀과 그에 따른 성례에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개혁파 신학자나 교회들이 신자들의 거룩함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종교개혁이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로마 가톨릭보다 도덕적 우위성을 확보하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었다. 칼빈의 경우 권징을 교회의 표지로 보지 않았을 뿐이지, 교회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종교개혁 당시 최고의 신학자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 피터 마터 버미글리(Peter Martyr Vermigli)와 같은 이들은 권징을 교회의 표지 중 하나라고 보았고, 이와 같은 생각은 스코틀랜드나 벨기에 신앙고백서에 반영되었다. 요약하면, 개혁파 신학에 있어서 권징에 대한 완벽한 합의는 없었고, 또 권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교회 안에서 실천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지만, 권징이 교회를 세우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다. 그 결과 오늘날 개혁파 신학에서 권징은 일반적으로 말씀과 성례와 더불어 3대 표지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영국혁명 때까지 국가교회 개념은 루터파는 말할 것도 없고 개혁파 신학 안에서 큰 도전을 받지 않았다. 로마교라는 거대한 "짐승"의 위협으로부터 참다운 교회를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는 군대 힘을 지휘할 수 있는 경건한 위정자들이었다. 이 때문에 종교 개혁자들은 모두가 경건한 위정자들을 복음으로 설득시키는데 온 힘을 기울였던 것이다. 심지어 루터보다 교회와 국가의 구분을 어느 정도 강조한 칼빈조차도 자신의 〈기독교 강요〉를 개신교를 박해하는 프랑스 왕에게 헌사하였다. 반면, 위정자들의 힘을 전적으로 거부하고 오직 말씀에만 의존하려고 하였던 재세례파들은 교황뿐만이 아니라 세속군주에게도

엄청난 박해를 받았다.

개혁파 교회들은 세속 군주의 도움으로 교리적인 순수함을 지킬 수는 있었지만, 일단 교회가 세속 군주의 관할 하에 놓이게 되자 교회는 국가의 눈치를 크게 살필 수밖에 없었다. 세속 군주가 경건한 군주일 때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그들의 후계자들이 항상 경건하게 될 보장은 전혀 없었다. 그리고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세속군주의 최우선 관심은 교회의 순수성 보다는 국가와 교회의 안정과 평화이었다. 그들이 원했던 교회는 단일한 교리와, 단일한 교회 정치와, 단일한 예배 형식 속에서 단일화된 교회이었다. 한 국가에서 국가의 인정을 받는 하나 이상의 종교가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만약 그런 일이 발생된다면, 국가는 분쟁과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세속군주들은 생각하였다. 당연히 이 교회의 기본 방침을 문제 삼거나 도전하는 세력들이 생겨나게 나게 되었고, 이들은 세속 구주의 미움을 살 수밖에 없었다.

영국교회와 청교도

오웬이 속한 영국교회는 기본적으로 철저한 국가교회였다. 대륙과 달리 영국의 종교개혁은 교회 지도자들이 신학자들이 선도한 것이 아니라, 좀 어처구니없게 들릴지 모르지만 개인적인 욕심(자신의 원래 부인과 이혼하고 자신이 원하는 여자와 결혼하기를 원하는)을 이루기 위한 국왕 헨리(Henry) 8세에 의해서 직접 추진되었다. 그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이혼을 반대하는 로마교회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고 스스로 영국교회의 수장이 되었다. 이 교회는 헨리의 아들 에드워드(Edward)에 의해서 교리적으로 보다 철저한 개혁적인 교회를 지향하였지만, 그가 일찍 사망하는 바람에 카톨릭 신자였던 메리(Mary) 여왕에 의해서 개혁운동은 잠시 좌절되었다. 그러나 다행히 그녀 이후에 위대한 여왕 엘리자베스(Elizabeth)가 장기간 통치하면서 영국은 완전한 개신교 국가가 되었다. 이 기간 동안 강력한 왕의 통치 하에 국가교회가 정립되었는데, 교리에

있어서는 〈39개조 신조(Thirty-Nine Articles)〉, 교회정치에 있어서는 주교제, 예배에 있어서는 〈공동 기도서(Book of Common Prayer)〉, 말씀선포에 있어서는 〈설교집(Book of Homilies)〉이 4개의 기둥이 되어 굳게 자리를 잡게 되었다.

그 결과 영국교회에 있어서는 교회의 통일성을 위해서 위에서 언급한 형식을 대단히 강조하였다. 비록 그런 형식들이 로마교의 잔재를 많이 제거하기는 하였고 따라서 반(反)성경적이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 근거한 형식도 아니었기 때문에 비(非)성경적인 형식도 많았다. 문제는 그러한 형식들이 모든 교회의 회원 특히 목사들에게 강제되었고, 이런 형식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정치적, 교권적 탄압이 시행되었다. 이런 종교적 정책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만 신앙생활을 마지못해서 하는 형식주의가 교회에 만연하게 되었다. 청교도들은 이러한 종교적 형식주의를 거부하고 진정으로 생명력 있고 활력 있는 신앙생활을 추구하려고 하였다. 이 점에서 청교도들은 영국 교회를 새롭게 하려고 했다는 측면에서 부흥을 꿈꾸었던 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청교도들은 교회를 새롭게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완전한 일치를 보지 못하였다. 어떤 이들은 기존의 형식을 그대로 두고 성도들의 경건생활을 활성화시키는 것에 만족하였다. 이들은 영국 교회 안에 남아서 개혁운동을 주도하였다. 어떤 이들은 교회 정치체제와 예배 의식을 보다 성경적으로 개혁시키는데 주력하였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영국교회와 별도로 교회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재건하는데 관심을 가졌다. 이들 중에서 가장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이들이 회중교회파(congregationalists)라고 불리는 청교도들이었다. 비록 신학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칼빈주의 신학을 고수하였지만, 교회 정치에 있어서는 지교회의 독립을 주장하였다. 오웬은 바로 이 회중교회파가 배출한 칼빈 이후 가장 뛰어난 개혁파 신학자 중의 한 사람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오웬과 교회재건

오웬의 아버지는 국가교회를 거부한 비국교도에 속한 목사였고, 이 비국교도 전통 속에서 자랐다. 그는 영국교회의 형식주의를 거부하고 교회를 초대교회의 모습에 따라 재건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는 영국교회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교회의 기초는 제대로 세웠으나 그 위에 건물을 제대로 세우지 못했다고 생각하였다. 오웬은 자신이 할 일은 바로 이미 놓인 굳건한 기초위에 튼튼한 건물을 짓는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오웬에게 있어서, 영국교회는 로마교회로부터 해방을 했으나, 로마교회적 관습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였다. 이는 마치 출애굽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노예근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과 같다. 교회는 교리적으로 새롭게 되었지만, 여전히 그 속에 있는 사람은 달라진 것이 별로 없었다. 단지 로마교회라는 이름이 영국교회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오직 고위 성직자들만이 로마교회로부터의 해방을 확실히 체험할 수 있었다. 물론, 교회 예배에서 미사는 사라졌고 일반 성도들은 영어로 된 성경을 읽을 수 있었지만, 회원들의 구성은 큰 차이가 없었다. 성도들의 삶은 바뀌지 않았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재세례파는 세속국가와 완전히 단절하고 유아세례를 폐지하여 참다운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로 구성된 거룩한 공동체를 구성하려고 하였다. 물론 이런 방법은 개혁신학에 굳건히 서 있던 오웬으로서는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오웬은 그들이 지적하였던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였다. 문제는 개혁신학, 특히 유아세례의 근거가 되는 언약신학을 끌어안고서 어떻게 바른 교회를 정립할 것인가 이었다.

신약 성경에 교회는 집에 비유되곤 하였다. 집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굳건한 기초가 있어야 하고 튼튼한 벽돌이 서로 굳게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오웬은 이 성경적 비유를 교회 재건에 적용하였다.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교회의 기초가 바로 세워져야 하고, 튼튼한 교회의 구성원이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이 회원

들이 서로 단단하게 하나로 묶여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교회의 기초는 이미 종교개혁을 통하여 확고하게 놓여 졌기 때문에, 이제 필요한 것은 튼튼한 돌과 돌 사이의 굳건한 연합이었다.

산 돌: 중생한 자들

오웬은 교회가 부실한 이유 중의 하나는 교회를 이루는 회원들 중에 부실한 돌, 죽은 돌이 구석구석에 끼여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건물을 튼튼하게 짓기 위해서는 오직 제대로 된 돌만을 사용해야 한다. 그런데 영국 교회 안에는, 신실한 신자들도 많았지만 이름뿐인 신자들도 많았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교회가 세례를 받은 사람들을 사실상 거의 자동적으로 회원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비록 영국 교회가 올바른 말씀을 가르치고 성례를 올바로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교회의 회원이 부실한 이상 제대로 된 튼튼한 교회가 될 수는 없다고 오웬은 보았다. 교회의 표지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굳건하게 서서 성도들을 바로 세우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였다.

오웬은 교회 회원들을 오직 중생한 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실제로 오웬은 이러한 중생의 강한 체험을 한 사람이도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오웬은 중생과 세례를 동일시 여기는 로마교적인 개념을 거부하고 그 둘의 구분을 강조하였다. 세례는 표지이고 중생은 실체이기 때문에 이 둘은 서로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요한복음 3장 5절 에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로 분명히 말씀하였듯이, 세례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중생한 자가 교회의 회원이 되어야 한다고 오웬은 거듭해서 강조한다.

물론 누가 중생하였는지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세례만 받은 사람이라면 아무나 회원으로 받아들여서도 안 된다. 비록 인간이 중생 그 자체는 알 수 없으나 중생의 결과인 그 열매는 알 수 있으

며, 교회의 치리기관은 그 열매를 가지고 의미 있는 판단을 할 수 있다. 정말로 신자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고, 생활 속에서 선한 열매를 맺는다면 우리는 그를 중생한 사람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보았다. 오웬은 적어도 회원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이런 최소한의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오웬의 이러한 생각은 그의 비판자들에게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축소시킨다고 비난을 들어야 했다. 오웬의 말을 따르기 위해서는 교회 속에 있는 회원들 중 상당 수 정리를 해야 했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든 교회 안으로 많은 사람을 끌어 모으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인데, 안에 있는 교인조차 밖으로 내 모는 것이 교회로서는 할 일이 아니라고 보았다. 이러한 비판에 대하여 오웬은 초대교회를 예로 들면서 강하게 반박하였다. 초대교회는 회원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철저한 교육을 시켰고, 이미 받아들인 회원에 대해서도 엄격한 권징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오히려 폭발적으로 성장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숫자가 모이는가가 아니라 어떤 종류의 신자들이 모이는가이다. 교회에 필요한 것은 산 돌(벧전 2: 5)이며, 이 산 돌은 중생한 신자들이다. 이러한 사자들로 구성될 때, 교회는 올바르게, 그리고 굳게 설 수 있다는 것이 오웬의 강한 확신이었다.

교회언약(church covenant): 성도간의 굳건한 연합

제대로 된 돌이 단지 모여 있기만 해서 집이 되는 것이 아니듯이, 중생한 사람들이 모이기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벽돌이 시멘트를 통해서 서로 굳게 붙어있어야 건물이 되듯이, 교회도 산 돌인 중생한 신자들이 서로 굳게 연합되어 있어야 한다. 교회 회원들인 이 돌들 사이의 연합을 교회언약(church covenant)라고 부른다. 보편적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언약으로 모든 회원들이 연결되어 있듯이, 지역교회도 언약을 통해서 하나로 결

합되어 있어야 한다. 교회 언약은 교회의 회원이 되기를 원하는 중생한 신자에게 회원 간의 철저한 헌신을 요구하는 문서이다.

이 결합의 특성은 자발성이다. 언약이라는 것은 언약 당사자들이 자발적인 헌신을 통해서 성립되는 것이다. 만약 언약에 자발성이 빠진다면, 그 언약은 언약이 아니라 강요가 된다. 그렇게 될 경우 그 공동체의 결속력은 크게 떨어 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자기가 원해서 가입되지 않은 단체를 위하여 진정한 충성심이 생길 수 없다. 이 언약의 도입으로 인하여 교회는, 성공회나 장로회같이 위에서부터(예를 들면 주교나 노회와 같은 권위 있는 기관으로부터)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부터, 즉 신자 회원들의 언약에 근거하여 세워진다. 쉽게 말하면, 교회는 목사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이 세우는 것이다. 이전에는 목사가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아 신자가 되면 교회가 세워지지만, 이제는 그 반대로 세례만 받은 신자가 성경을 읽고 중생을 경험하게 되면 그 신자들끼리 모여서 상호간의 언약을 세울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이다.

교회언약은 개 교회(congregation)를 최우선으로 여긴다. 이 점에서 지역교회의 개념도 근본적으로 변하였다. 이전에는 지역교회라고 하면 보편교회(universal church)에 반대되는 말로 특정교회(particular church)라고 불렸다. 그 특정교회는 주교가 다스리는 일정한 교회들의 모임인 주교좌 교회(Diocese)나 혹은 장로교의 경우 지역교회들의 모임인 노회를 지칭하였다. 따라서 개 교회는 주교좌 교회나 노회의 한 부분일 뿐 온전한 의미에서 교회는 아니었다. 하지만, 이제는 교회 언약으로 이루어진 지역교회야 말로 그 자체로 완전한 교회일 뿐만 아니라 그 위에 더 이상의 권위가 있을 수 없는 독립된 교회였다.

오웬이 교회를 이렇게 이해한 이유는 지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직접 통치를 받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되심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교회 위의 교회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였다. 교회가 타락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리스도가 직접 교회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

이 세운, 비성경적 제도인 주교나 노회가 참견하여 통치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인위적으로 교회의 구역을 만들고, 그 구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 구역에 위치한 교회에 자동적으로 가입하게 하는 교구제도(parish system)야 말로 올바른 교회를 세우는데 가장 큰 적이었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1000년 이상 영국에서 유지된 이 제도는 교회언약을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오웬은 초대교회의 예를 또 언급한다.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단체였다. 국가가 교구라는 구획을 정리하여 회원들에게 강요하지 않았다. 성도들은 자기가 가고 싶은 교회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그 교회에 헌신함으로 회원이 되었다. 오웬은 이런 초대교회가 가진 자발성의 원리가 실천되어야 참된 교회를 건설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오웬은 국가에 의해서 종교가 강요되어서는 안 되며, 무조건 교회 안에 사람들을 모으려는 시도는 오히려 교회를 망치는 길이 될 수 있음을 역설하였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오웬은 국교도나 장로교인들과는 달리 양심의 자유와 제한적 의미에서 종교적 관용(toleration)을 주장하였다.

마무리와 비평

1650년대는 영국 혁명이 발생하여 왕이 죽고 국교가 폐지되어 젠트리 계급을 중심으로 한 신흥 세력들이 청교도들의 지원을 업고 정권을 잡았다. 왕이 죽고 나서, 군대를 지휘하였던 올리버 크롬웰이 국정 최고 수반의 자리에 올랐다. 오웬은 크롬웰의 신망을 받아 종교에 관한 한 최고의 고위 공직자 자리에 올랐다. 그는 자신의 신념대로 영국의 종교 정책을 추진하였고, 최고의 대학인 옥스퍼드 대학의 학장을 맡아 미래의 주역들을 교육시켰다. 그는 최선을 다하여서 영국의 모든 교회들이 자신이 구상한 대로 교회가 재건되기를 기대하였다.

아마도 모든 청교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힘을 모아 오랜 기간 동안 이 일을 추진하였으면 오늘날 영국교회는 많이 달라졌을지 모른다. 하지만, 크롬

웰이 정권을 잡을 기간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다지 성공적이지도 못했으며, 무엇보다 그의 후계자가 될 아들은 국정을 이끌기에 무능력하였다. 결국 대륙에서 피난하였던 왕은 1660년에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고, 새 왕은 이전의 모든 것들을 다시 원위치 시켰다. 오웬이 추구했던 교회의 중건도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그러나 오웬은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 국가적인 규모에서 교회를 중건하는 것은 실패하였지만 시골 작은 마을에서 자신이 생각했던 대로 한 작은 교회를 목회하면서 성경적/초대교회적 이상을 따라 세우려고 하였다. 그리고 그곳에서 조용히 지내면서 여러 책들, 특히 방대한 히브리서를 주석하였는데, 이런 훌륭하고 탁월한 저술들은 이후 세대들에게 지속적인 영향을 주었고 교회의 개혁, 부흥, 중건을 갈망하는 이들에게 끊임없이 솟아나는 신학적 원천이 되었다.

오웬의 꿈은 그가 살았던 시대 속에서 잉태한 산물이다. 그 자신은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지만, 아무리 옳은 신학적 견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얼마든지 오용할 수 있다. 그는 영국의 모든 교회를 칼빈주의 신학과 연합된 회중주의 교회로 만들려고 하였지만, 실제에 있어서 회중주의는 개교회 중심주의를 조장하였을 뿐 아니라 오늘날 미국에서 가장 좌경화된 신학을 양산하는 중심이 되었다.